

2026년 2차 하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6년 6월 11일(목) 14:00 ~ 15:30	장소	꽃누리실(학습2실)
참석위원	최정호위원장, 권옥희위원, 김상겸위원, 서은지위원, 오은주위원, 이경자위원		
불참위원	김현정위원		

◆ 성원보고 및 개회

- 최정호위원장이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권옥희위원이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성원보고 후 최정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전차회의록 보고

- 오은주위원이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다.
- 전차회의록에 대해 원안대로 받기로 전원 동의하다.

◆ 경과보고

- 오은주위원: 2026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하누리주간보호센터 2분기 운영 경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하다.

2026년 개별화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테라스 개보수 및 주방·식당 출입문 교체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다.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모니터 및 사무용품을 구입하였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생점검을 실시하다. 장애인의 날 기념 환경캠페인과 이용자 자조모임 여행을 진행하였으며, 최인경사회복지사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비전리더상을 수상하다.

언어·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및 쌀을 후원받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보강사업(500만원)과 서울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디지털 콘텐츠 활용사업 (2,100만원)에 선정되어 시설 기능보강 및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5월 연합여행과 보호자 자조모임도 실시하였는데 전원 참석한 것을 보고하다.

- 오은주위원: 2026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분기 운영계획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하다.

우리 문화체험, 금빛운동회, 문화공연 관람, 건강증진사업, 신입직원 교육, 상반기 사업평가 및 개별화 지원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치아대회 참가, 구청지도점검 및 법인 도예공모전 작품 출품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 최정호위원장: 한국재활재단 도예공모전 작품출품 준비에 대해 질의하다.

- 오은주위원: 도예강사가 직접 공방운영함으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으며 이용자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작품 출품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다.

- 이경자위원: 센터의 PC 지원 필요 여부를 문의하며 후원 연계 및 이용자 컴퓨터 교육을 제안하다.

- 오은주위원: 이용자분들이 희망하시는지 여쭙고, 원하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지원 형태로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설명하다.

- 전체 위원: 2분기 운영보고와 3분기 운영계획 보고에 대해 동의하여 재청하다.

◆ 부의안건

- 최정호 위원장: 1호 부의 안건을 상정하다.
- 오은주 위원: 제1호 안건인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 및 편성 사유를 설명하다.
- 김상겸 위원: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1차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공모사업 및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전체 위원: 제1호 안건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여 재청하다.

◆ 기타보고

- 제1호의 안: 이용자에 의한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발생의 건
- 오은주 위원: 이용자의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시설에서는 해당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및 직원상해 보험을 통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보고하다.
- 김상겸 위원: 시설이용자로 인한 종사자의 인권침해가 발생 건에 대한 심의 제안 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상위법을 준용도 필요하지만, 하누리주간보호센터의 내규 규정에 근거한 보고가 필요함을 제안하다.
또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마음건강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다.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다.
어려운행동으로 센터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시설에서는 물리적환경과 종사자의 신체적 지원의 한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행동의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기관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안하다.
- 최정호위원장: 이용자 사고 발생 시 보험 및 보상체계에 대해 질의하다.
- 오은주 위원: 시설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필요 시 보다 적합한 보험으로 보완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전체위원: 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더 이상의 이의 없이 이경자위원의 동의와 김상겸위원의 재청으로 기타보고 제1호 「이용자에 의한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발생의 건」을 원안대로 받기로 의결하다.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오후 15시 20분 위원 전원의 동의로 운영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였다.